

학교탐방

“사랑과 열정으로 꿈과 희망을 가꾼다”

ايا진초등학교

‘행복한 애(愛)·기(氣)·미(美) 의형제 동아리’ 운영 ... 행복한 아야진 어린이 육성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위치한 아야진초등학교(교장 남병목)는 지난 1960년 개교해 졸업생수 3,054명을 배출했고, 현재 전교생 57명이 재학하고 있다.



남병목 교장

학교에 들어서면 푸른 동해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큰 마을, 작은 마을로 이뤄진 마을 모습이 땅콩을 닮았다. 옛 지명이 ‘애기미’로 불렸던 전형적인 어촌마을에 위치한 학교이다.

2008년 9월에 부임한 남병목 교장은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경동문회와 총동창회의 후원으로 건물 주변과 교문에 화단조성과 체육시설을 설치해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색교육으로 ‘행복한 애(愛)·기(氣)·미(美) 의형제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교 동아리 화단 가꾸기, 마테오 요양원 봉사 활동, 동아리 생일축하 편지쓰기, 행복한 애기미 뒤편아영 및 대청봉 등반 프로젝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청봉 등반은 4~6학년 학생들이 3월부터 꾸준한 체력훈련을 통해 6월 초에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강한 아야진 어린이로 자라기 위해 매일 아침을 힘찬 달리기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아야진 교육 중점 활동으로 기초·기본학력 책임제를 통한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래 사회 주역으로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방과후학교 수준별 영어 강좌 개설, 질 높은 영어교과 활동, 다양한 영어 체험 행사, 방학중 영어 캠프 활동 등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모교를 사랑하는 아야진 동문회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다. 아야진초등학교 1회 졸업생인 지승연 재경고성군민회장과 김주일 재경동창회장, 아야진총동창회(회장 김종완)에서는 입학식을 맞아 매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 통장을 만들어 각각 20만원과 체육복 한 벌을 준비해 모교의 후배들에게 입학 축하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또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경비를 일체 지원해 아동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을



ايا진초등학교 전경.

주고 있으며, 졸업생에게는 일인당 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09~2010년에는 고성군 교실수업 개선 중심학교를 운영해 ‘좋은 수업 좋은 선생님 만들기’를 위한 우수 외방강사 초빙 고성군 교원연수 실시 및 모텔학급 교사들과의 연구회를 통해 교사의 수업 질 개선에 매진했다. 2010년에는 교육과정 유공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매달 뉴스 레터를 통한 학교행사와 아동

들의 활동모습을 학부모에게 홍보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학교문집 연간 1회, 학교신문 2회 등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병목 교장은 “사명감이 투철하고 사랑과 열정으로 존경받는 선생님과 바른 인성과 창의력으로 도전하면서 꿈을 키우는 어린이가 자라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야진 교육가족이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6>

고성팔경(高城八景)④ 화진포(花津浦) III

‘화진팔경(花津八景)과 장자못 설화’

지금의 화진포는 여말선초(麗末鮮初)부터 금강산 유람 길에 이곳을 찾은 사대부와 시인묵객들의 여러 문집에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성군 화진포의 8경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정수를 의미하고 있으며 간성현감을 역임한 탁풍당(澤風堂) 이식(李植)이 1631년 현감 재직 시에 만들어서 널리 알렸다고 하고, 김삿갓(金鰲)이 화진포에 머물면서 지었다고 전하는데 문헌상에 나타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측할 뿐이다.

팔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경 ‘월안풍림(月安楓林)’ 원당마을 앞 호수에 비친 달빛과 단풍, 제2경 ‘차동취연(次洞炊煙)’ 화포리 차골(次洞)에서 저녁을 짓는 연기, 제3경 ‘장평낙안(長坪落雁)’ 호수동편 장평부근의 기러기 울음, 제4경 ‘평사해당(平沙海棠)’ 호수주변 빨강개 핀 아름다운 해당화, 제5경 ‘금구농파(金龜弄波)’ 화진포 앞바다 금구도(金龜島)의 파도치는 모습, 제6경 ‘구룡치수(九龍治水, 口龍治水)’ 호수 물과 바닷물이 서로 부딪치는 모습, 제7경 ‘모화정각(茅花亭閣)’ 호수와 어울린 모화정의 고즈넉한 모습, 제8경 ‘풍암귀범(楓岩歸帆)’ 풍암을 향해 돛단배가 귀항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이들 팔경 가운데 여섯 번째인 구룡치

수 대신 ‘모운종성(茅雲鐘聲)’ 거진을 뱃전리 건봉사(乾鳳寺)와 현내면 명파리 조제암(鳥啼庵)에서 은은히 울려오는 목탁과 독경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며 삼매경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구룡치수의 ‘九’를 입구(口)자로 보기도 한다.

화진포의 지명과 관련된 장자못 설화가 전승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못 전설은 대부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禁忌)가 내포된 것으로 호수의 생성에 관한 신비한 신화적 화소가 중심이다. 강원도 동해안은 바닷물이 유입되어 민물과 섞인 석호가 일찍이 발달한 곳으로 강릉 경포대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전승되고 있다.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화진포에 이화진이라는 욱심이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금강산 건봉사 승려가 찾아와 시주를 부탁하자 처음에 쫄쫄한 흥 정도를 주고, 삼 년 후에 두 번째 찾아와서는 쫄쫄한 술기락을 주었고 그 뒤에 세 번째는 종(하인)을 시켜 소풍을 한 바가지 퍼주었으며 이를 본 며느리가 승려에게 사죄하며 쌀을 시주하자 승려는 며느리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해 며느리가 산에 오르자 부자집은 간데 없고 물이 가득 차 호수를 이뤘다는 내용이다.



석양이 아름다운 화진포 모습.

당시 부자집에는 금으로 만든 방아공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지금도 청정한 날 배를 타고 화진포 복판에 가보면 누런빛이 비친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위의 화진포 설화내용의 제보자는 1996.12.11 거진을 송정리 조건희(당시 73세)씨에 의하여 『고성지역(간성읍·거진읍) 지역의 기증문화』 「관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에 발표된바 있다.

또 다른 한 편의 수록된 설화는 전체적인 내용과는 일치되나 등장인물이 며느리가 종(하인)으로 바뀐 상태로 전해지

고 있다. 이 장자못 설화로 말미암아 고성군은 고대설화 형상화 관광명소 개발 추진으로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6월 화진포에 ‘떠느리여인상과 수중금빛방아공이’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만들어 인근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김 광 섭

- 향토시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